



## 꿈은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에게 평등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60~70년대에 빈 손으로 이민떠나 성실히 노력해서 부와 명예를 쌓은 우리 동포들의 성공담은 미국을 기회의 나라로 인식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으며 이름하여 '아메리칸 드림'이란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구었다. 이제는 역이민 현상이 낫설지 않게 소개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10여년전부터 중국조선족을 비롯, 동남아 각국에서 수십만명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뛰어 들었으며 어느덧 생산인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살기 어려운 곳에서 온 이들은 '한국에서의 한 달 고생이 고국에서의 1년 생활'이라는 각오로 갖은 고생 끝에 돈을 모아 귀국하는 그야말로 '코리아 드림'을 찾아 몰려 들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는 4강신화를 창조했는데 이 때 선수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승국가의 유니폼에 새겨지는 별을 향해 '꿈★은 이루어진다'는 기치아래 뚝뚝 뭉쳤던 기억이 새롭다.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국가할 것 없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지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국가야 당연히 모든 부문에서 백년대계를 세워야 하지만 기업도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는 목표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느 물결에 휩쓸

려 떠내려 가게 될지도 모른다. 요즘 인쇄업계 경기가 하도 어렵다보니 인쇄인들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아예 원망할 힘도 잃어버렸다는 것이 생생한 민심인데다가 경제여건이 좋지 않으니 인쇄인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다.

성난 인쇄인에게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어려운 현실을 되짚어보면 가능성 또한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정적인 현실만 놓고 분노와 좌절, 비관에 빠져 든다면 나라와 겨레의 앞날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어려움을 이기고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좌절과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울분을 토해내는 생활을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다다라야 할 목표와 꿈이 없는데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만 한다.

새해 출발은 희망과 소망을 지니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 이외의 잡념은 일단 접어두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듯하다.

대부분의 인쇄인들은 건전하고 성실하다. 그래서 함께 구호를 외쳐도 힘이 솟는다.

"꿈은 이루어진다."

〈오세익·편집주간〉